東大新聞

發行人 黃 善 永
編輯人 朴 先 榮
印刷人 鄭 九 鎬

主幹 權 奇 悰
編輯局長 金 容 詮
編輯部長 南 渲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 火曜日發行

次席장학新設, 가사奬學 점차 폐지

2학기부터 實施, 수업료 반액면제

형편어려운學生들엔 충격

學科·學年 차석장학이 新設, 東國人들의 勉學精進에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장학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은 가사장학(A폐지)축소와 더불어 한비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점차 가사장학 축소에 따른 해결책의 모색이 하루빨리 강구되어 發展的인 장학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수혜폭확대에는 도움못돼

면학풍토위한 보완따라야

기존의 首席장학금에 이어 各학년·학과 마다에 次席장학금이 신설,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신설된 장학금은 성적우수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전체 학생에 비해 절대로 부족하므로 장학금 수혜에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대한 일련의 조처로 최근 3학기(82 1·2, 83 1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은 평균인원 11·6%, 지급액 21·3%에 불과하며 이것은 사실상 대부분이 일등우수 장학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학기 성적우수로 수상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 83년2학기에는 가사 A만 에정이다.

他大의 장학금지급의 경우 K大는 A장학(성적순 비례연장학·총장장학 (금10만원), 운행장·단기학자금 등의 두종류에 평균학점3·0이상이면 장학금 신청(가사월급=25만원~30만원), B장학(가사월급=25만원~30만원)이 가능하며, S大는 학수석(37만원), 과차석(30만원), 3학년 구분없이 대여할 것(원), 3학장학(18만5천원), 4학년 차석장학(15만원), 학과 차석장학을 신설할 경우수로서 받을 수 있는 장학은 인원11·3%, 금액9·8%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학년·학과 차석장학금수혜대상자는 수업료 반액면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장학금 제원확보는 가사장학금(가사A장학폐지)을 점차 축소지급함으로써 마련하게 된다.

지금까지 가사장학생 선발에있어 뚜렷한 선정기준이없어 모호하게 학과에따라 성적순·유년제 등의각기 다른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가사장학 취지에 대한 혼돈과 불균등한 장학금 배분에대한 불만을 주어왔다.

또한 가사장학이 무상으로 지급되고있어 교육효과 및 장학금 지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의 차석장학신설은 큰의미를 지녔다 할수 있다.

本校 가사장학 축소지급 대안에 따른면, 가사장학 축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 겨울, 연구하여 실시할 他大의 장학금지급의 경우 K大는 A장학(성적순 비례연장학·총장장학 (금10만원), 운행장·단기학자금 등의 두종류에 평균학점3·0이상이면 장학금 신청(가사월급=25만원~30만원), B장학(가사월급=25만원~30만원)이 가능하며, S大는 학수석(37만원), 과차석(30만

사설

開學과 大學人

가을 한철이 청아하게 고고함을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한다. 올 여름은 밀중우의 더위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이 山과 바다로 피서를 떠났다가 이를 견디는 연로에 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환원하는 꼴을 볼 것이다.

지난번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근면·성실함이 가을과 더불어 확실하게 열매 맺고 있다.

대학도 여름방학동안 연수·봉사·연구등으로 분별속에 용켄도 이겨나서 지금은 건실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로 대하면서 교정에는 젊음의 환호를 울리면서 정답게 울리고 있다.

그 환호간운데도 더욱 활기를 띄우면서 대화하고 있는것은 졸업정원제의 보완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것을 보면 지난 7·30敎育政策이 대학생활에 부담감을 준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 개혁으로 인한 어려움과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교부당국은 실시 3년동안의 과정을 놓고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이 복잡다단한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7·30개혁이전의 제도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주고있다. 3년동안 실시하면서 여러게 입학한 학생을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가 자율화되어 대학당국에서 학부하고 근면 성실한 대학인을 양육하는데 그 권한을다시 부여받게 된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은 문교당국의 개혁안에 숫점을 두면서 그 실행내규를 만들어 내어 모든 대학인이 자유스럽게 자기의 협력과 취향에 부합하는 전문분야인이 되도록 만전을기하여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졸업원제의 철폐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보편성, 인격의 순수성을 차단하고 학점위주의 계산주의, 자기위주의 이기주의로 몰아 넣는 결과가 되어 대학을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 비인격적인 교육으로 치닫게 한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수 없었다.

새학기에 접어들어 문교당국이 종전의 졸업정원제의 모순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혁한것은 환영하지만 그러나 정원제의 제도가 완전히 폐기된것이 아니고 몇가지 찬반의 쟁점 모두가 많음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이기회에 새롭게 창출하여 회생의 폭을 좁혀야 할것이다.

유급제와 4학년 수료를 자율화함으로 대학당국에서 학사정계를 받지 않는한 탈락되지 아니하고 입학자는 전학년 수학하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학은 이는 입학생을 4년까지 수용하고 속기의 면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유감없이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문호는 넓게 개방되는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 質을 높이는 교육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즉 편리하고 안온한 강의실, 학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도서관, 과학기재 또한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완비되어 대학 4년이 인격과 학문이 굳게 훈도되는 대학이 되어야 학에 눈을 돌리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문교당국은 제도개혁이 근시안적인 형태로 도출되었다가 얼마가지 아니하여 폐지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미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8백여명의 대학생이 중도탈락되어 쓰라린 대학생활을하여 앞날한 자기과거를 정립하게 함것은 한번 생각할 흠이 아니라 자기생애의 커다란 불명예가 아닐수없다.

정원제가 자율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의 수리적 모호성의 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학생들이 많음을 감안하여보면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이 신중히야 할을 지적하고 싶다.

대학·그리고 대학생 모두가 혼연자가되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학문과 인격을 살찌게 함양시키는 능기를 창조하여 인생의 낭인가없는 인생활동을 순화하는 길을 찾아야 할것이다.

〈文理大교수·宋敎哲〉

농산물 유통구조의 現狀과 課題

趙 炳 贊
〈農産大교수·農業經濟〉

◇…우리나라 農業이 직면하는 문…◇
◇…제는 經濟의 불안정과 격심…◇
◇…한 가격변동, 유통의 비능률…◇
◇…및 높은마—진이라는 악순환…◇
◇…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본고…◇
◇…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구명…◇
◇…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
는데 뜻을두었다. <편집자註>

Ⅰ、問題의 提起

유통이 경제에 있어 달달하는 일부는 생산과 소비를 能率的으로 적합시킨다 일이다. 생산량과 소비의 적합이라고 할은 생산량과 소비량이라는 양적 적합에 그치지 않고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가격과 품질등의적 합까지를 의미한다.

유통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반 願權을 生産에 반영하고 이에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을 능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한편, 새로 개발된 상품이라던가 기존 상품에대한 신용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조를 함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하는 일부를 지닌다.

그런데 近間 우리나라의 농산물유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반복되는 생산의 불안정과 격심한 가격의 변동및 유통의 비능률과 높은 마진률이라는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있다. 이와같은 農産物流通의 비능률의 악순환은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을 불안케 하며 나아가선는 生産者의 受取價格을 침해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는 것이다.

本 稿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구조적 비능률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과정을 개괄하고 그 개선대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産地段階의流通構造

1、農家의 生産活動

우리나라 農産物流通의 비능률과 전근대성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農家의 농업생산활동으로부터 내재한다.

都市化가 급진전되고 産業社會가 고도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의 대량적 능률적 유통이 점점히 요구된다.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한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市場狀況에 균형하는 농업생산을 하기 위하여는 농업생산과 영세상인의 대여 소량적 일정성으로 소비되는 소비조를 복정으로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도매시장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농산물은 도매시장이 존재함으로서 거래촉수 최소화의 원리에 의하여 능률적인 수집과 분산 그리고 가격형성등의 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량유통을 능률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근대적인 능률적인 상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처럼 영세생산과 영세상인의 대량을 수집하고 상지수집상은 자본력이 미약하기때문에 다시 중앙도매시장과 거래하는 반출상에게 넘기다.

농업생산활동에 있어 생산농가간의 조직화는 여러가지의 장점을가진다.

첫째 생산계획과 시장정보수집이 전제가 되는 시장정보수집이 강화되고, 둘째 자본과 생산수단 및 기술의상호보완에 의하여 생산력과 기술의평준화, 고급화가 촉진되며, 셋째 거래교섭력이 강화되고, 넷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다섯째 농산물의 선별, 등급화, 규격화, 표준화에 의한 상품성의 제고등에 의하여 개별농가로서는 불가능한 시장대응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영세농가에 의한 무조직적, 무계획적, 개별적, 임의적生産狀況이 아닐로 연계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이로 말미암는 불안정성의 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농가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産地市場으로는 部落問 수집상과 5일장터 읍내고정 시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읍산 청과물시장의 경우를 보면 장소가협소하고 통폐 시설이 빈약한데다가法的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정도매시장과 협력으로 불공정되어있는 유사도매시장이 병존하는 이중우조를 형성하고 있다.

읍산시장의 구성을 보면 穀物, 대지등의 시설과 도매인수에 있어선능협동조합을 포함한 법정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33%34%인데 비하여 유사시장의 그것은 각 89%, 67%, 66%이다. 거래량에있어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불완전경쟁이 존재한다. 불완전경쟁은 통계 상의 불안정성, 조직화되어 있지않은 상태하에서 시장정보가 불완전한 영세농가들에 의하여 분산적, 개별적 임의적, 투속적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무한 농가들에 의한 무조직적, 투계획적 개발생산은 농산물의 질적, 양적 불안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간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영세농가에 의한 生産販賣에는 영세한 산지수집상이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생산활동과 계획적인 시장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도 생산농가가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않은 상태하에서 시장정보가 불완전한 영세농가들에 의하여 분산적, 개별적 임의적, 투속적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무한 농가들에 의한 무조직적, 투계획적 개발생산은 농산물의 질적, 양적 불안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간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영세농가에 의한 生産販賣에는 영세한 산지수집상이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생산활동과 계획적인 시장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아직도 생산농가가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않은 상태하에서 시장정보가 불완전한 영세농가들에 의하여 분산적, 개별적 임의적, 투속적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무한 농가들에 의한 무조직적, 투계획적 개발생산은 농산물의 질적, 양적 불안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간에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영세농가에 의한 生産販賣에는 영세한 산지수집상이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생산활동과 계획적인 시장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2、農家의産地市場 出荷段階

農産物流通의 다원제화와 높은 流通마진率 그리고 유통의 비능률은 農家의 출하단계로부터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生産과 流通과의 결합관계에 있어 영세적생산에는 영세상인이 대응하고 近代的 대규모적 생산에는 근대적 규모적 유통기구가 대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세농가에 의한 生産販賣에는 영세한 산지수집상이 생산자 수집상의 前近代的 流通機構가 전부이다.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의 산지유통기능이 全無한 實情이기 때문에 自生出荷團體에 의한 共同出荷가 일부 존재할뿐 농가들이 거의 전적으로 前近代的 형태의 산지시장을 상대로한 개별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의 농가들이 장은 寬善産地市場을 현실하여 농산물의 農家受取價格을 농가에게 불리하게 형성된다.

이와같이 産地市場의 불완전경쟁에 의한 農家受取價格의 불리한 정도의 크기는 곧 農家出荷段階부터의 유통마진의 확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즉 前近代的 零細生産과 영세상인의 대응에 의한 유통의 多段階化와 産地市場의 불완전경쟁성으로 말미암아 農産物의 유통마진은 농가출하단계로부터 확대되는 요인들안고있다.

뿐만 아니라 産地의 영세한 수집상은 자본과 유통설비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소비시대에 부응하는 비용적인 대량유통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Ⅲ、都賣市場의構造

영세규모의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무수히 존재하는 생산구조와 전국적으로 산재한 무수한 소비자들에 의하여 소량적 일정성으로 소비되는 소비조를 복정으로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도매시장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농산물은 도매시장이 존재함으로서 거래촉수 최소화의 원리에 의하여 능률적인 수집과 분산 그리고 가격형성등의 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량유통을 능률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근대적인 능률적인 상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유통은 대부분이 영세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매시장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처럼 영세생산과 영세상인의 대

正道外交音言 LOUD 적! 外交確石되지…

時論

多者관계정립, 關係改善의 지렛대
共産圈횡포, 原則論的 견제필요해
惰性젖은 外交觀 탈피시급

지난 7월25일 李範錫 외무장관은 외무부 직원조회에서 「우리 外交는 과거 目前의 利益만에 급급하여 저자세외교를 펀 결함이 없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다소의 반발과 손해를 감수한다하더라도 우리 外交는 正道를 밟는, 옳은 길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같은 「正道外交」 선언은 앞으로의 對外政策정립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과 지금까지의 目前利益만을 의식한 저자세외교의 탈피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일반적으로 「外交政策」이 한國家와 다른 國家間에 평가할 수 있는 관련한 관계를 포함한 行動(action)과 決定(dcision)을 이루어지고 「外交」는 自國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國家利益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우리外交의 根本目標는 「국제무대에서의 北韓제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外交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확립된 慣行에서 벗어난 外交, 즉 「非 正道外交」를 해온 主原因이라 볼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의 比較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맹목적인 투자로 끊임없는 國力의 소모를가져왔고, 끝내는 우리 外交의 취약점을 노출시켜 진정한 實利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것이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李承晩대통령의 「1인외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외교는 크게 4분문으로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는 「安保外交」로 이는 정부수립이래 우리 외교의 맹우동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安保外交는 그 성격상 국제및 주변정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갖기 때문에 동서냉전시기라 할수 있는 50년대에는 반공국가건설과 자유무방과의 결속을 최우선의 안보정책으로 삼고 신생국으로서의 大韓民國政府의 정통성 확보와우방으로부터의 군원 확보를 위한 안보외교를 전개했고 매명분시기라 할 수 있는 60년대에는 기존의 안보방책에 지연협력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多極化時期인 70年代이후에 들어와서는 平和定着 門戶開放 그리고 戰爭抑止를 위한 經力安保外交를 전개해왔다.

둘째는 「經濟外交」로 이는 國內外 政治·經濟動向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으나 그 근본적인 目的과 基本原則은 항상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다. 즉, 互惠原則과 國際協力에 의한 經濟發展 및 繁榮의 追求, 通商및 經濟交流增進에 의한 友好親善關係의 圖謀, 기본책으로 自由經濟體制와 市場經濟 메카니즘에 입각한 對外通商 및 經濟關係의 增進 그리고 기존 國際經濟秩序에 의한 상호 주권과의 交物교환에 의한 상호 친선과 연대강화, 의국인 관광객과 문화관계인사의 유치및 초빙을 통한 문화소개, 우리 문화재의 행외전시및 문화사절단의 파견 그리고 해외유학생의 파견을 통한 선진기술과 문물의 흡수및 우리 문화의 소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0년대의 文化外交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점도였고 60년대이후에 의서야 외교망의 확충에힘입어 적극적인 國際文化交流로한층 활발히 전개되었다.

끝으로 「對非盟外交와 對共産圈外交」를 들 수 있다. 1948년 제정된두대에 등장하기시작한 非同盟國家들은 「국제무대에서의 北韓제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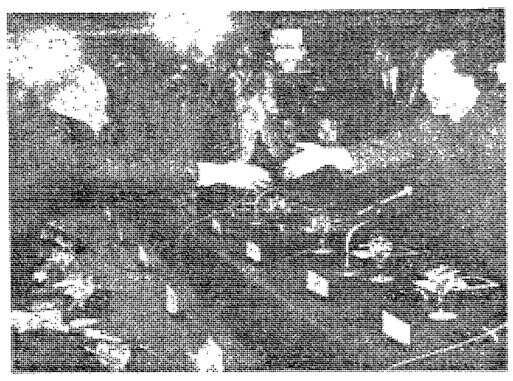
50年代의 우리 外交는 넘부도 親美·親西方主義이어서 對非同盟國外交는 구체화될 수 없었으나 60年代에 들어서부터는 孤立外交를 버리고 積極外交를 지향하면서 非同盟國의 承認, 親善使節團의 파견, 초청외교의 강화 등을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70年代이후부터는 非同盟諸國에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아울러 신흥성장는 외교의 전개로 北韓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非同盟諸國의 經濟實利追求에 편승하여 經濟的 유대를 기반으로 한는 實利外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 60년대 말까지 「反共」을 리外交의 基本政策으로 하다가 70년대에 들어와 現實的解무드에따른 급격한 國際情勢의 변화속에 國家利益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對共産圈外交를 조심스럽게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이 크게 4분문으로설명되어지는 우리 外交의 35년에는 크고 작은 屈折外交, 즉 저자세의 非 正道外交」사례가 점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를 中共·蘇聯등 공산대륙과 日本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민족적인 비극의 南北分斷의 현실, 분단국의 빈약, 미약한 국력, 그리고 政治的불안정 등의 상황이 우리 外交를 일관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의 外交로 만들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비전보다는 즉각적인 취益에 더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를 中共·蘇聯등 공산대륙과 日本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민족적인 비극의 南北分斷의 현실, 분단국의 빈약, 미약한 국력, 그리고 政治的불안정 등의 상황이 우리 外交



◇正道外交를 통한 實利外交는 우리나라의 現상황에서 많은 난제를 안고있다. <사진은 피납중공여객기및 승객송환을 위해 협상하는 모습>

다. 국제무대에서의 南·北韓외교 대결은 70년대에 들어와서 한층 가열되어 유엔, 非同盟 또는 그 외의 국제기구에서 한표란도 더 많은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안기 위해 무모하고 맹목적인 투자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외교는 한계와 취약점을 노출시키게되었고 우리의 상황을 악용한 일부 비동맹국가들은 남북한을 저울질하며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있었다. 그들은 북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왔으며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우리정부는 끌려다녔던 것이다.

최근 南北共和國에 동시가입한 구-1백20만의 小國「레소토」가 北韓카드를 내밀면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왔지만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만족한 대답을들자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 레소토는 자유월옥의로부터의 4백만달러 원조를 받고도 中共이 1천5백만달러의 원조를 약속하자 자유월국과는 단교하고 지난 5월에 中共과 수교한 국가이다.

또한 西南亞의 「몰디브」는우리 원양어선을 나포한 뒤 과중한 벌금을 선고 이에 항의하자 北韓과의 관계개선 욕의를 시사한 바 있었고 南太平洋의 섬나라 「나우루」는 지난해 요청한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北韓 쪽으로 돌아서 버리기도 했다.

이같은 北韓카드의 악용행위는 비단 후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그 발발과 기술이 세련되었을 뿐 만 아니다.

自國의 이익을 위해 北韓카드를 악용하는 그들을 탓하기 앞서 목적은 이익에 급급하여 하열이 고개를 숙인 우리 외교 번 「正道外交」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正道外交」 선언은 과거의 우리 외교가 겪은 시행착오의 결과일 것이다. 그 중은 예를 들 수 난 5월 「中共民航機의 불시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제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사건을 對中共關係改善의 好機로 생각하여 그 등에게 지나칠 정도의 온자화대를 행주면서 實利를 챙겨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사건이후 中共은 두번씩이나 유엔전문기구의 공동조사관하는 自國內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의 참가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갑절한 창을를 해 국제기구의 지지를받기도 했다.

이렇듯 目前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는 主權과 독립이 존중되도록 의연하고도 당당한 자세로서 正道를 걸을 때 당장은 손해도 보고 반발도 있겠지만 국익적으로 우리 外交가 승리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正道外交」의 구현의 은 中共, 蘇聯 등 주변의 共産大國과의 관계정상화 추진을 물론 비동맹, 共産圈 및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우방국과의 관계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회의에서의 공산권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原則論으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中共·蘇聯과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의대우를 누리는 多者관계를 정립시키는 것이 관계개선에 지렛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같이 과거 우리 外交가 內的으로 안고있던 복잡한 모순과 나약성을 제거하려는 反省에서 국제적 여건을 냉철히 분석하고 나가는 적극적기틀을 발휘할 수 있는 外交로의 전환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교섭활동인 「外交」는 고도의 정확한 정세분석, 냉철한 분별력, 합리적인 사고및 기민하고도 강인한 판단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 外交가 이같은 사항을 고루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능동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갈 만큼 우리의 國力이 신장되었는지 못는것이국제정치들인만큼 정단인지는 의문점이 아닐수없다.

과거 우리 外交는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과잉보호를 받아 건전하고도 발전적인 비판을 통해 自己更新기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正道外交」 宣言에 앞서 많은 반성이 있었으리라믿고싶고 앞으로 우리 외교는 력도등분히 강화했으리라 믿는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국익도 국익일에는 의심할 여지가없고 「正道外交」원칙의 시행을 한한 다소의 부담과 예상외 반발이 있더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正道外交」가 실효를거두려면 무엇보다도 35년간 누적된 의부부의 체질과 외교관의 타성이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여하튼 우리 외교 35년간에저 자세의 「非 正道外交」를 청산하고 주체성있고 담백한 正道外交」를 펴정단고 담백한 正道外交」를 펴정단고 담백한 正道外交」를 펴정단

자작과 農村의 하계放學

奉仕活動

박기욱

대학에서의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는 뜻있는 일을 해보고자 농촌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안고 농어촌연구부의 하계 농촌 활동을 하기위한 단원으로 83년8월15일부터 22일까지 7박8일 동안 참가했다.

활동반원은 충북 보은군 내북면 노티, 중촌, 장속, 삼개 마을로 나뉘어 활동을 했다.

나는 노티리에서 활동하게 되었었다.

마을 어린이들의 경이에 찬 눈동자와 뭔가 결계한는 열렬한 청년들의 눈빛『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든 불만은 서울에서 풀자』현실에 충실하자』나의 현실은 충실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란 다시 한번 버스를 내리며 각오했다.

◆결코 짧지만은않았던 放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었다.(봉사활동장면)

미약한힘, 보람느껴 農村이해에 큰 도움

한편 직접 농민과 쉼우며 생활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막상 갚이 지내다 보니 농촌일의 어려움과 농촌생활이 너무나 도시에 비해서 부족어진 것을 느꼈다.

주민들은 영농과학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갖기는 하나 그 흥미가 단순히 흥미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 역에서 보는 나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몇 청년들과 공동작업인 참깨재배에 성공하여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욕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는 밝은 농촌의 미래를 본듯 같아 마음이 흡족했으나, 육신상으면 관계말로의 대대적인 지원과 전문가를 파견으로 마을에 과학 기구를 투입하여 영농과학의 필요성을 보여 주민들의 가련운 곳을 금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비록 소수 주민의 호응이지만 그들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봉사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서울로 돌아오는날 비내리는 버스에서 아쉬움이 남기는 했으나 농촌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수 있어 무엇인가 가슴에 전해지는듯 같았다.

〈慶熙大 농학과〉

"열심히, 바쁘게 살았읍니다"

勉學精進

박유경

누구나 방학을 맞이면서 나름대로의 計劃과 期待를 하면서 뜻있는 放學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했을 것이다.

나도 올 여름 방학을 맞이면서 일정량의 목표를 設定해 놓고 기필고 實踐하겠다는 무서운 각오로 임했지만 一次試驗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當落의 岐路에서 勞心焦思하다가 七月 한달은 깜짝할 사이에 후딱 지나쳐 버리고 八月이 되어서야 精神을 가다듬어 여름이란 겁게 마련이고 매미가 울면 지난날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무덤운 여름을 마다않고 정면대결을 해서 땀흘려 일한 개미와 그 매미가 여태껏 보잤던 방학은 한 번도 뿌듯한 마음으로 學을 맞아보도록 해 주질 못했다.

긴 시간들한 여행도 할 수 있고 深山幽谷에서 자연과의 조화도 배워 볼수 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벌고 社會實情도 배울 수 있지만 나는 지난날 기나긴 통산 3년여 방학을 流用해버린 결과로 항상 낭에게 뒤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같다.

실로 3년이면 얼청난 일자산이다. 이 기간을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진 못해도 짜임새있게 보냈더라면 한는 생각을 해본다다

아들은 하루도 빽놀지 않고 도서관에 나오는 제철들에 비하면초라하기 그지없이 보낸 방학이지만 그대도 목전에 절박한 현안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얼씨속에서 밀려 일한 자만이 품절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꼬이 깨닫고 반성해 본 방학인 것같아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같다.

단을 방학은 한결 성실하게 그리고 조리있는 방학이 되고 아쉬움을 남기지않는 방학으로 뿌듯한 개학을 맞을 수 있었으면 한다.

〈법대대 정외과〉

아르바이트

천미경

방학을 맞이할때시 이번 방학은 보람있게 보내야겠다고 나름대로 설계를하던 기억이난다. 사실 1학년때의 여름방학을 엄다고하는 필계로 호지부지하게 그야말로 대강 보냈것을 절실히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주위 친구들의 계획을 들어보니 참으로 그내용이 다양하기 이를데 없었다. 도서관을 벗삼겠다고도 하고 여행계획을 펼쳐놓기도하는데 나는 울여들을 꼭한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람을 찾고싶었다.

이 후로는 3·4학년이 되면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번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막상 동산소의 근무 1주일과 구청에서 1개월의 생활은 나의평소 고정 관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친절하고 순박한 주민의 생활이 외부에서 보는이단 순한 후지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고충을 안고 있을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갚을을 주고도 보람을 느낀 것은 이산 가족 찾기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전에 여러 매스미디어의 덕택으로 그 상황과 동기(動機)는 듣고 있었지만 절수를 위하여 찾아오신는 날들을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사연과 설움이 서려있음을 알고 시하고 접수 도중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는 불들에서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슬픔이 나에게도 전하지는 것은 민족의 아픔에서 내가 제외될수없음이라라. 올봄 나라가 이산 가족인 동한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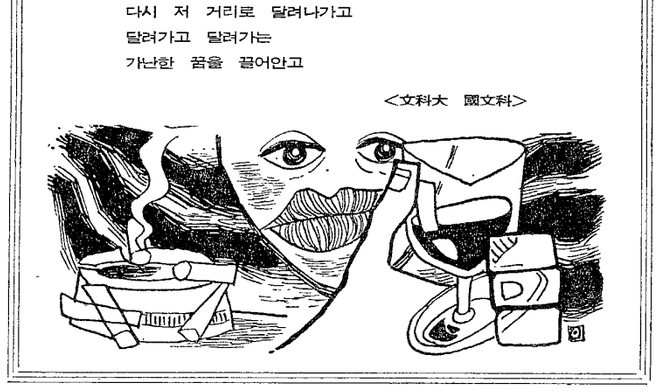
나의 成長에 밑거름 돼 가족찾기現場, 큰감동줘

한시 빠삐 이 슬픔이 이 땅에서 속죄 조차 없도록 사라져야 한다는 신념이 짧은 기간 동안 굳게 세워졌다. 8월에 들어서면서의 업무는 사회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도록 하고선도 날들이 있었다.

앞이 끝나고 귀가하면 반사가 귀찮을 정도로 피곤하였다. 그 것을 무릅쓰고 책이라도 몇 자 읽으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 고생을 왜 해야한는지 의문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루 하루의 생활이 지나는 가운데 일 속에 몰두하는 기쁨도 알게 되고 여러 갚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직원들과의 생활 가운데 배움도 많이 있었다.

이제 어느새 방학이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 아쉬움이 일어나는것을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남는 허전함일까? 하였는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일단락 지어졌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배움터로 달려가는 이 마음이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득차 있어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것에 대하여 여태껏 감사하지 않은 것이 죄송스럽게 까지 느껴진다. 이 어려운 작은 경험이 앞으로 평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나의 성장에 밑거름으로 크게 작용할것이다.

〈師範大 수교과〉



우리의 어두움을 위하여 -V-

김 기 주

序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본다。친구여
버렸던 그 무엇을 줍기위하여, 그래
이제야말로 잃지 않으려
저 어둠에 묻힌 슬픔의 하얀뼈, 물살의
흐름속에 은전히 서기 위하여
일어서고 또 일어서기 위하여

Ⅰ

기차를 타고 떠나는 사내들이
끊임없이 잊혀지고 있음을
보았다。
유채꽃, 부드러운 젖가슴의
수액이, 졸리운 바다
눈동자를 닮아가며
호주머니에서 버려진 꿈의
하늘 가까이 쓰러지는 순한 눈빛들을

Ⅱ

버리고 있었음을
아아 그렇게 버리고 있었음을
무참히 베어지는 나의 등, 허리,
어깨, 팔다리, 강가의 골잎, 노을들이
재빨리 스쳐가며, 흩러가며
낮은 바다의 몽상으로 익사하고
추락하던 어둠의 깊이에서
다시 따뜻함을 기억할 때
불 부비던 어둠의 온기

Ⅲ

빛들에 눈 찔리고
귀 멀어
돌아앉던 날들의 쓸쓸함 가운데
내 등의 어두움과
어두움 가까이 부드게 무늬지는
무엇들을 보았음으로
이제는 희미한 이름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다시 저 거리로 달려나가고
달려가고 달려가는
가난한 꿈을 끌어안고

<文科大 國文科>

교리리

尹時林 <21>

새책안내

독일어 시간
지그프리드 렌쯔著 鄭瑞雄 譯

전후 독일 문단의 代表的 作家 렌쯔가 쓴「독일어 시간」을 정서웅 교수가 번역 출간했다。1968년에 발표된 본저는 나찌 시대에 실재로 행해졌던「繪畫禁止」를 모태로 권력과 예술 사이의 갈등을 다룬 作品。나찌스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서라 할 수 있는데 그는 무비판적이고 맹종적인 의무관에 사로잡힌 作中人物 예프젠을 통해서 전체주의가 어떻게 순박한 소시민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역사의 반복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길사刊・434面・값4,000원>

民族과 文學
姜寅翰 外編

姜寅翰・金準泰・文淳太・尹在杰 씨등을 편집위원으로 光州서 創刊된 새 文學무크지。民族文學의 새로운 의미에 관한 특집좌담과 소설신에 4人選, 詩12人집, 각설이모노드라마「품바」의 대본, 茶山學의 민중성 고찰에 對한 평론이 수록되어 있다。
<光州세종출판사刊・378面・값3,000원>

미국의 사회주의
어빙 하우編 金種心 譯

오늘날 미국사회의 모순이 예민하게 나타나고있는 분야에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논문을 어빙 하우가 모은것。
창간25주년을 맞아「더센트」誌 편집인 어빙 하우가 미국사회주의의 역사와 지향, 흑인과격주의의 고민, 월남의 망령등 26편의 논문을 추린것을 東亞日報社 신동아部차장 金種心씨가 옮겼다。
<민음사刊・267面・값31,500원>

日本經濟史
石井寬治 著

막부사회의 특질, 개항의 경제적 영향 전전일본제국주의의 전개동을 살펴 일본 자본주의의확립과정과 원형을 분석했다。東京大 경제학부의 강의원고를 묶은 것으로 趙琴來씨가 옮겼다。
<청하사刊・281面・값3,300원>

文化短信

「神의 아그네스」
9月5日까지 실험소극장서

실험소극장에서는 여배우만 출연하는「神의 아그네스」를 윤호진연출로 9월5일까지 실험소극장에서 공연한다。윤소정·이정희·윤석화가 출연한다。공연시간은 4시·7시30분。

「게사니」
문예회관 대극장서

극단 민중극장에서는 창단 20주년기념으로 게사닌를 제작 26日부터 31日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서 공연한다。이근삼作 정진우연출로 제7回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작품。공연시간은 4時30분, 7時30分。

대학생 문예작품
9月30日까지 시문학사서

월간시문학사에서는 우리 문단의 주역이될 젊은 대학생 문예작품을 모집, 시·단편소설로 9월30일 이내에 시문학사에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고료가 지불되며 1회추천의 자격을 준다。

메아리

▲高麗이래로 暗殺은 끝없이 이루어졌는데 암살형태도 다양하다。

東西古今에 전통적으로 행해진 암살형은 OO7형 암살로서세계전역의 인기의 되었던 사라예보 황태자 암살사건, PLO의장 아라파트 사건, 72년 뮌헨 올림픽 팔레스타인 테러단 암살사건, 이스라엘선수단 암살사건, 사브레대통령암살사건등인데 이 유형의 특징은 사건등에 이 유형의 특징은 암살의 배후가 權力층에 오르기위해 특정인 1人이 아닌 단체라는것이다。다시말해 권력층의 내부보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 암살당사자는 그 배후보다는 지위한 권력층에 오르려는 권력의 性格을 지닌 세력의 관심이 간다는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둘째유형은 그 종교및 혈통가다 권력층의 장인들가 있다。그렇다면 필리핀 이 직접 行했거나 사주 을위한 1人이 아닌 단체라는것이다。다시말해 권력층의 내부보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 암살당사자는 그 배후보다는 지위한 권력층에 오르려는 권력의 性格을 지닌 세력의 관심이 간다는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둘째유형은 그 종교및 혈통가다 권력층의 장인들가 있다。그렇다면 필리핀 형은 權力을 잡은 자의 자신의 강력한 독재적 권력층을 위해 독재자 위에 도전하는 者를 하수인을 시켜 암살하는 유형으로 마하트마 간디 암살사건, 白凡 金九선생 암살사건, 등으로서 이같은 형태의 암살은 절치부심하려는 혹은 분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끔찍한 것이 있을 뿐 더러 배후가 항상 암개속에 쌓여 있음은 틀림이 없어 犯人배후는 18년간이나 執權했던 독재자 이 기니노의원과의 그동안 투쟁과정을 생각할때 두번째 유형인 權力쟁탈 쟁취으로 이 유형에 삽혈 배후오리무중 유형이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지 한지만 김 건에서 뵈돌적 배후는 결구선생 암살법 안회도 코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아직까지 살아있으며 배 생각된다。만일 복하지않 후가 확실히 죄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디옹사 은 일로 배후가 노출될 건과 비교한다면 어느쪽 우려가 있으면 인위적인 도 일맥상통하는점이 있 또다른 사건이 발생되어 다고 하겠다。아울른 결국 사건은 權力의 안 유형은 권력쟁탈형 암살 개속으로 사라질 가능성 이었다。權力쟁의 주범에 현태라 할수 있다。▲세 비밀을 갚추기 위해, 사 째는 영웅심의 발로에 의 소한 오해를 해결하기위 한 자오도희적 암살유형 해 한 人間이 피와땀으 로 방으로 교환 사건, 토 이루어온 가능성을하 레이건 대통령 저격사건, 루아침에 와해 시키는것 링컨대통령 암살사건 등 을 볼때 이같은 생각은 으로서 이 부류의 특징 결코 무리라고 생각되어 은 암살형태들이 회발하지지 않는다。〈南〉

暗殺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ENTERPRISE CO.,LTD.
본사(부산) : ☎ 56-0121/0130, 서울사무소 : ☎ 723-5935/9·725-9717/9

30년을 오로지 면직물만 생산해온 외고집이 오늘의 태창을 이룩했읍니다.

저희「태창」은 젊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읍니다. 질기고 편하고 부드러운 것, 바로「버펄로」입니다. Buffalo

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렛치
언제 어디서나 활동적인 젊은이— 그들의 행동은 힘차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수 있는 용기가 있읍니다.
생동하는 젊음의 마당에서 활동적인 젊은이가 원하는것— 그것은 순수하고 뜨거운 정열과 샘솟는 활력, 그리고 편하고 맵시있는 캐쥬얼웨어입니다.
젊음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기업「태창」— 태창이 생산하는 100%순면원단 「버펄로」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렛치는 활동적인 젊은이를 위한 캐쥬얼복지입니다.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의 80%가 버펄로 원단입니다.
SS패션, 반도패션, 코오롱, 톰보이 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와 봉제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의 캐쥬얼웨어들이 굳이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펄로' 원단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세계40여개국에 수출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읍니다.

콧튼마크가 순면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캐쥬얼복지 '버펄로'는 대한방직협회가 100%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콧튼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자랑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산뜻한 색상과 흡습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 또한 싸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이있는 경제적 활동복지입니다.

태창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버펄로 골덴 가는 골에서 굵은 골까지 다양한 종류와 색상이 있으며 골이 가는 제품은 바지보다는 상의용으로 알맞습니다.
버펄로 우단 100%순면으로서 특수한 표면처리로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색상이 일품입니다.
버펄로 데님(부루진·칼라진) 세탁때마다 물이 조금씩 빠져 언제나 새롭고 산뜻한 색상을 즐길 수 있는 인디고 데님과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이 세탁후에도 변하지 않는 칼라데님도 있읍니다.
버펄로 슈퍼스트렛치 (데님·골덴) 고신축성 복지(Super Stretch)로 순면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고무와 같은 탄력을 지녀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구김이 가지 않습니다.

태창은 이런 일도 하고 있읍니다.
태창여상 태창여상은 어려운 여건때문에 배우지 못한 종업원들을 위해 공장내에 설립된 정규과정의 고등학교로서, 540여명의 종업원들이 수업료는 물론, 교복, 교과서,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배움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또한 '태창'은 재단법인 일맥문화재단을 설립, 부산및 경남도내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과 문화진흥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내집마련 지원 태창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는 당연히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에서 사원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돕고 있읍니다.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묶는 '내집갖기운동'의 결과로 사원들의 업무 의욕이 높아짐은 물론, 150여명의 사원들이 내집을 마련하여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건전기업상 정립 지역사회개발과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 투철한 '태창'은 은탑 산업훈장, 새마을훈장협동장, 국민훈장목련장, 수출공로상등 많은 영예를 안았으며 오늘도 사회에 봉사하고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2,500여 종업원들은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읍니다.